

■ 일본 대기업(제조업), 대대적 구매코스트 절감 대책 추진

- 일본의 전기, 자동차, 정밀기계 등 대기업(제조업)이 부품, 자재의 조달코스트 절감 노력을 강화해오고 있음.
- 대기업 및 제조업은 '03년도까지 리스트럭처링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서 실적 회복에 진력해오고 있는데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 이익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매 코스트 절감노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닛산자동차 카를로스 공사장)이라면서 코스트 절감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음.
- 닛산자동차는 '99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닛산리바이벌 플랜"에서 부품, 자재의 조달비를 20% 줄이는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였음. 거래처의 축소, 프랑스 르노와의 차체 공동화 등으로 조달코스트 절감노력을 강화해 왔으며 15% 절감을 목표로 한 차기 3개년 계획도 실질적으로 2년간에 목표를 달성하는 등 조달체제 재편을 늦추지 않고 있음.
- 이밖에도 소니는 '05년도까지 거래처수를 기존의 4천7백개사에서 1천개사로 압축하고 부품의 종류도 84만점에서 10만점으로 줄여 구매가격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히다치제작소는 지금까지 약 1천개사의 그룹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구매방식을 변경하여 그룹차원의 공동 구매를 강화하며 NEC는 설계 변경, 해외에서의 개발 강화로 코스트를 억제한다는 방침임.
-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같은 부품·자재의 조달은 물론 기타 간접경비 일체에 대해서도 그룹차원의 조달관리 체제를 정비하는 등 코스트 절감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추진해오고 있는 점임.
- 전술한 히다치제작소의 경우 그룹 차원에서 간접경비의 대대적인 절감을 목표로 사무용품 등 일반 구매품, 광열비·전화요금 등 계약지불 등 조달관련 업무를 본사의 조달관련 부문의 일원화하여 '04년도에 약 3백억엔의 코스트를 절감하였음.
- 마츠시타 전기산업은 '03년 6월부터 그룹 전체의 간접자재의 코스트절감을 목적으로 "코스트 버스터즈 프로젝트"를 추진, '03년도부터 2개년간 1천억엔의 간접자재코스트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음. 소니는 '06년까지의 3개년 중기계획 "TR60"의 추진을 통해 연간 9천억엔에 이르는 비생산재의 구매를 절감한다는 계획임.
- 기업그룹의 조달전략이란 측면에서 일본기업은 외자계 기업에 뒤져온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히다치외에 마츠시타 전기산업 등도 여타 주요 대기업들도 이 같은 코스트절감에 가세함으로써 납품기업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철강, 석유제품 등 소재가격 인상에 따른 우려와 더불어 해외메이커와의 경합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일본의 주요 메이커들은 금년도 채산환율(사내 목표환율)을 달러당 105엔 전후에서 책정, 엔고 국면 도래에 대비하면서 대대적인 코스트절감 대책 추진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영체질의 강화에 진력해오고 있음.
- 향후 경기 회복국면이 더욱 뚜렷해지더라도 일본 주요 대기업의 코스트절감 노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대기업 및 제조업의 조달코스트 절감 현황 >

기업명	조달 코스트 절감 현황
닛산자동차	4년간 총액 1조엔정도의 조달코스트 절감
마츠다	도에 5백억엔 절감, '04년도는 451억엔 절감 계획
소니	도말까지 거래처를 4,700개사에서 1,000개사로 축소, 조달코스트 절감 계획
히다치제작소	도에 3,730억엔의 절감효과, '04년도중 3,000억엔의 절감 목표
NEC	재검토, 부품수 축소를 통해 '04년도중 3,800억엔 절감 목표
후지쯔	2조3천억엔의 부품.재료 구입비를 '03년도부터 2년간 5천억엔 절감 계획

(문의처 : 도쿄무역관 신태철 stc69@kotra.or.kr)